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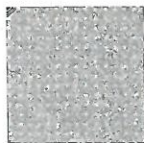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476호

2023년 11월 26일(가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부활하신 예수 | 이남규 루카, 67x125cm, 레드케임 기법, 1985년 인천교구 가좌동성당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예제 34,11-12.15-17

**화답송** | 시편 23(22),1-2 7.24-3.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5,20-26.28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마태 25,31-46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성용 유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 성군(聖君)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하느님의 어린양 등등. 그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왕입니다. 왕은 그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군(聖君), 혼군(昏君), 폭군(暴君).

성군(聖君)은 꼭 필요한 왕입니다. 자신의 모범적인 말과 행동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길이 기억될 업적을 남기는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왕 밑에 사는 백성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백성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 왕은 바로 이런 존재이십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게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기에 쉽게 극복이 됩니다.

혼군(昏君)은 있으나 마나 한 왕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런 왕 밑에 사는 백성은 괴롭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한 번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폭군(暴君)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왕입니다.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 왕 밑에 사는 백성은 새날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새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성군 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혼군 밑에는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폭군 밑에는 폭군 못지않은 악인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신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힘으로, 공명정대한 시스템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자기 잇속만 챙기고자 하는 사람, 악한 마음만 가득한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군은 궁 밖에 몰래 나가는 야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눈과 귀를 대신할 수 있는 암행어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군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삶의 모습을 따르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작품 설명

새벽에 동이 터오고 어두웠던 성전에 점점 푸른빛이 차오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은 형형색색 구원의 무지개색으로 온통 성전을 물들입니다. 성전 안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듯, 저도 제 주변을 사랑의 빛으로 물들여 가고 싶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으로 저 자신이 스테인드글라스가 되어 하느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주실 분



한경아 아녜스 | 작가

고교 시절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의 세례명은 스테파노였습니다. 좋은 분이시다보니 '스테파노는 모두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감사함 덕분 일까요, 아니면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 때문일까요. 저는 입학식 때 하느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은 첫 만남에서 자신을 '스테파노'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20여 년을 함께 한 지금도 저는 스테파노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감사가 커진다는 뜻인가 봅니다. 지난 날 원장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한 아이의 세상이 되어주고 싶다는 바람이 커져갔습니다. 때마침 보육 시설의 부원장님으로 계신 조반니 신부님께서 초등학교를 위한 가톨릭스카우트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성모님께 편지를 쓰고 손수 만든 목주를 쥔 채 소리 높여 성모송을 외칠 때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 집니다.

스카우트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저희는 삼촌과 이모가 됩니다. 유난히도 남편을 따르던 소피아에게는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소피아는 한 달에 한 번 저희와 바깥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지게 성호를 긋고 "대부모님의 진짜 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모든 때는 하느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며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희는 소피아에게 대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다. 이는 저희가 더 이상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피아 역시 나고 자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죠.

시설과 의논해 소피아의 선택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름 심사숙고한 소피아는 "대장님이 없으면 친구들이 슬퍼할 것 같다."며 자신 또한 "사람들을 모두 만나지 못하면 슬플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이어서 "모두가 슬퍼하지 않을 때 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피아의 기도처럼 그때는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될 테니,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따뜻한 선택 덕분에 저희 또한 스카우트 대장으로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모든 일들은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를 위해, 부모가 그리운 소피아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자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에페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니까요.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위령 성일'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놀라지 마시다. 복음의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2년 위령의 날 강론에서.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무상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며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보편 사제직(2): 세례받는 모든 사람이 받는 사제직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보편 사제직에 대하여 장엄하게 선포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신앙이 중대하게 위협받거나 신자들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세계 목자들이 모여 올바른 신앙을 선포하고 교회의 나아갈 바를 밝히는 ‘보편 공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2천 년 교회 역사에서 21번째 보편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인 〈인류의 빛〉을 선포합니다. 교회헌장은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문헌에서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히브 5,1-5 참조)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묵시 1,6; 5,9-10 참조) 고 하면서 보편 사제직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보편사제직은 평신도들이 받는 사제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 사제직은 교황님을 포함해서 세례받은 모든 이가 받는 사제직입니다. 성직자들(직무 사제직을 받은 분)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당연히 보편 사제직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에서 세례 성사는 침수, 곧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로 거행되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했습니다.(로마 6,1-11 참조) 따

라서 침수 형태로 거행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를 당신의 사제직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 사제직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 걸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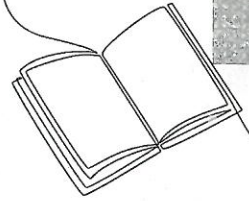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로 낳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며 그들을 어두운 데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 주신 분의 능력을 선포한다.(1베드 2,4-10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사도 2,42-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1베드 3,15 참조)(교회헌장 10항)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가 품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유대인들의 고발과 바오로의 투옥

## (23,12-24,27)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맹세하는 이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길 원하십니다.(마태 5,34-37 참조) 바오로를 향한 유대인들의 맹세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를 심문했던 최고 의회의 유대인들은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맹세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잘못을 덮기 위한 맹세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은 그들의 맹세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맹세를 이용해, 바오로를 카이사리아로 보내어 로마 여정의 초석을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일은 오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인간적 속단은 하느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바오로가 카이사리아 총독인 펠릭스 앞에서 설전을 벌입니다. 설전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길에 대한 것입니다. 최고 의회가 고용한 법률가 테르틸로스는 바오로가 나자렛 분파라고 하는 새로운 길의 괴수라는 사실과 유대인 사이의 마찰 문제를 고발합니다. 이에 바오로는 그들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

명히 하면서, 그들이 말한 새로운 길이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유대교의 계승에 관한 것이라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총독 펠릭스는 자신의 유대인 부인 덕분에 그들이 논쟁하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알고, 바오로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오로를 감옥에 가둔 채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 상황은 바오로에게 또 다른 복음 선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펠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향한 복음 선포입니다. 여기서 루카는 바오로가 전한 복음이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24,25)에 관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이전까지 복음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이는 총독 펠릭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의롭지도 못했고, 특히 여러 왕비와 결혼한, 절제가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펠릭스는 드루실라를 포함해 세 명의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오로가 선포한 내용은 펠릭스의 과거 삶이었고, 이를 들은 펠릭스는 두려움만을 느낀 채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루카는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강조한 듯 합니다.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붓고, 성유를 바르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절제를 추구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레퀴엠(Requiem)

“인자하신 주 예수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신경을 통해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사도 신경)라고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이에 ‘죽은 자들을 위한 전례’(Liturgia defunctorum)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 특히 연옥 영혼을 기억하는데, 통공의 신비 속에서 죽은 이들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전례는 ‘미사’와 ‘연도’로 구별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Missa in exsequiis)를 ‘레퀴엠’(Requiem)이라고 하는데, 입당송의 첫 구절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의 첫 단어가 ‘레퀴엠’(Requiem, 안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현대음악까지 레퀴엠을 풍성하게 보존하며 창작하고 있습니다.

통상부분과 고유부분을 모두 노래하는 레퀴엠에서, 대영광송(Gloria)과 신경(Credo)은 생략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Agnus Dei)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대신에 “그에게 안식을 주소서” 그리고 “평화를 주소서” 대신에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연송(Tractus)이 알렐루아(Alleluia)를 대신하고, 부속가(Sequentia)가 이어집니다. 부속가 ‘분노의 날’(Dies irae)은 트리엔트 공의회 때 공식 전례로 확정되었다가, 현재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는 공의회 정신에 따라 장례미사에서 생략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음악의 탁월한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속가는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1984년에 제작된 영화 ‘아마데우스’(Amadeus)에서는 죽음의 병상에서 모차르트가 부속가 중 ‘콘푸타티스 마레딕티스’(Confutatis maledictis, 저주받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를 살리에르로 하여금 대필하게 합니다. 특히 “보카 메”(Voca me, 저를 부르소서)라는 부분은 죽음에 직면한 모차르트의 기도를 간절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에서는 ‘라크리모사’(Lacrimosa, 눈물의 그 날)가 배경음악으로 흐릅니다.

베르디 레퀴엠의 부속가 중에서 첫 번째 곡, ‘디에스 이레’(Dies irae, 분노의 날)는 많은 매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선율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속가(Dies irae)의 마지막 절인 ‘피에 예수’(Pie Jesu)는 독립적인 곡으로 구별되어 ‘하느님의 어린양’ 전이나 ‘거룩하시도다’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위치합니다. ‘피에 예수’(Pie Jesu)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

*Pie Jesu, Domine,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인자하신 주 예수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모차르트(Mozart), 콘푸타티스 마레딕티스(Confutatis maledictis)

모차르트(Mozart), 라크리모사(Lacrimosa)



베르디(Verdi), 디에스 이레(Dies irae)

포레(Faure), 피에 예수(Pie Jesu)



# 마음의 심폐소생술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성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릇된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을 만나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뚤어진 애착’과 ‘애착에서 비롯된 행위 자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결국, 마음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밝고 선한 마음은 우리를 건강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반면에 어둡고 악한 마음은 우리를 왜곡된 생각, 그릇된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크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의 시작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안에 먼저 ‘정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정서 반응에 더해 자극에 대한 해석, 기억, 판단 등의 ‘인지 작용’이 이어지죠. 인지 작용은 다시 새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 반응과 인지 작용에 ‘의지와 태도’라는 일종의 경향성(습성)이 합쳐져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상태죠. 이런 하느님의 바람을 따라 우리 스스로 행복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마음의 충동이나 애착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잘 다독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해 아파하는지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일상의 삶과 하느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여러 힘든 마음(자책감, 무력감, 실망, 외로움 등)은 별개이고, 하느님 앞에서는 찬미와 감사, 기쁨 등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되지 않으니, 다시금 스스로 탓하게 되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 영성은 삶이고,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심리’입니다. 심리 차원을 잘 돌보지 않고서는 하느님과의 참된 영적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나의 마음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에제 36,26)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저산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월 26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오늘부터 '성서 주간(11월 26일~12월 2일)'이 시작됩니다

성서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승규(19서품) 신부	해외선교	면직

알림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12월 3일(주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나해'를 따르게 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 등록 신청 안내**

정규 등록 분야: 신축, 리모델링

등록 신청 기간: 11월 20일~12월 15일

자격 및 서류 제출, 심사, 등록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http://www.catholic.or.kr>)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참조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 알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2023년 정기 세미나**

주제: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 - 참 부모됨  
 때, 곳: 12월2일(토) 14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문의: 02)460-7623 /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http://www.cbck.or.kr)) 참조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2월7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2월7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캘러리아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이선 개인전: 1전시실  
 대림공예성물전 '빈손': 2전시실  
 글아캘러리아카데미 회원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29일(수)~12월7일(목)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3년 대림 특강**

때, 곳: 12월4일~18일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12월4일(월)	생명이 생명에게 건네는 말	강명옥 수녀
12월11일(월)	케렌시아(Querencia) - 안식처	이문수 신부
12월18일(월)	생의 말기의 의미	오석준 신부

**제48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내용: '생물다양성'(한정택 명예교수, 서강대 생명과학과)  
 때: 11월29일(수) 19시~21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분당' 미사)**

때, 곳: 1394 미사 11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강서 본당, 기림리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분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4 가톨릭중등교육자 피정**

주제: 이나시오 영신수련법을 통한 묵상기도  
 대상: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 교직원(가톨릭 신자)  
 때: 2024년 1월18일(목)~20일(토)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사후)  
 강: 김동일 신부(예수회) / 신청: 구글 온라인 신청서

인원: 40명(선착순) 12월1일부터 접수  
 문의: 02)566-5456 학교사목부 사무실

**학교사목부 교육봉사자 모집**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견진성사 받은 신자, 만20세~60세 해당자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때: 2024년 1월3일~5일 · 2024년 1월10일~12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11월27일~12월29일  
 회비: 10만원 / 문의: 02)553-7321(일,월 휴무) 자체 한 문의는 전화, 홈페이지([www.kycc.or.kr](http://www.kycc.or.kr)) 참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1월30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통해 바라본 병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병원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050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12월9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11월20일(월) 10시~12월1일(금)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http://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송봉모·오용진·홍성남·김희중 신부), 이 지나 작가의 영적글쓰기, 건강한 겨울 보내기(윤재연 정신과 의사)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ICPE 4가지 없는 청년들을 위한 피정**

대상: 고3 이상 청년 누구나 / 문의: 010-5320-0419  
 때, 곳: 12월10일(일), ICPE 센터(합정) / 회비: 1만5천원

**12월 '침'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대~50대 기혼 여성 / 회비: 6만원  
 때, 곳: 12월8일(금) 20시~10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21-6595 (문자 접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12월8일(금)~16일(토), 2024년 1월5일(금)~13일(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II	12월27일(수)~29일(금)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 개인·단체 피정 접수 가능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2월1일 10시~15시30분
대림 피정	12월5일·12일·19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	12월8일~10일(2박3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15일~17일, 2024년 3월10일~12일
연말연시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눈꽃산행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2월15일(금)~20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2024년 1월19일(금)~21일(일)	구본만 신부(서울대교구)
2월16일(금)~18일(일)	한정현 주교(대전교구)
3월28일(목)~31일(일)	성주간 피정(기도학교)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후학)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오웅진 신부 특별 강의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피는기도모임  
 때, 곳: 12월2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11월28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이상기 회장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말씀여행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2034-0042**

때, 곳: 12월15일 19시~17일 점심,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수유동) / 강사: 안소근 수녀  
 회비: 20만원 / 접수: 0808dominic@naver.com

**토마스 머튼 영성배우기 피정(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내용: 박재찬 신부의 머튼영성 강의(총12회)  
 때, 곳: 2024년 매월 둘째주(토) 10시~16시, 성 베네딕도 서울 피정집(장충동) / 문의: 010-8719-8608 (문자)

**해맞이 피정**

때: 12월30일(토) 16시~2024년 1월1일(화) 13시  
 곳: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25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주아가 태어나심은 '모든 이들에게 천당길을 걸게하기 위하심'이다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2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해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한라산 자연순례 12월8일~10일, 12월16일~18일, 눈꽃산행 1월6일~8일, 1월12일~14일, 1월19일~21일, 1월27일~29일, 2월3일~5일, 2월14일~16일, 2월23일~25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특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정규한 신부의 '하느님 안에서 세상보기'  
 때: 12월5일 개강, 매주(화) 13시30분(10주)  
 곳: 삼성동 / 강의 방법: 화상, 대면, 녹화 강의 병행  
 인원: 선착순 15명 / 문의(접수): 010-3845-3045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영성심리학으로 보는 인물 치유 특강**

때: 매주(일) 14시~16시(16시 주말미사)

**2) 대림 피정**

때: 12월6일(수) 10시30분~17시30분 / 미사: 이용권 신부

1강	정대영 신부	2강	한영민 회장
----	--------	----	--------

**1년에 읽는 구약성경(Zoom)**

지도: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주최)  
 때, 곳: 2024년 1월~12월 (일) 16시~18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12만원씩 4회 / 문의: 010-4598-6912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양업고등학교 2024년 신입생 모집**

때, 곳: 2024년 1월5일~7일(2박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19일(화) 오전 10시 / 문의: 043)260-5076  
 방법: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 회비: 15만원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회비: 일반·첫걸음 2만5천원, 단과 1만원  
 사이버성경학교 연수회(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4년 전기(1차)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 제2과정(석사과정)  
 인터넷 접수: 12월7일(목) 17시까지 / 문의: 02)2164-6521  
 기술고사: 12월11일(월) 14시 / cukgscl@catholic.ac.kr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11월27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4년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4년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회비: 6개월 12만5천원(교재비 5천원 포함)  
 문의: 02)995-7394(scdeaf01@hanmail.net)

2024년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9호
1월10일(수)	13시30분~15시	
1월11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1월12일(금)		19시~20시50분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bc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음악이 있는 대림 특강**

강사: 박병규 신부 / 찬양: TALK IN US  
 때, 곳: 12월8일 오후 7시40분, 청담동성당  
 문의(접수): 02)945-5985 생활성서사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2일~26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패 '풍울림'**

장구, 북, 팽과리 같이 배우고 싶은 분 초대합니다  
 때, 곳: 매주(월)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3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모집**

**서초동성당 첼로 오케스트라·바이어 전공자 모집**  
 대상: 작곡, 바이올린, 클라리넷, 바순, 성악 / (월) 21시 미사  
 접수: cafe.naver.com/caelumorch / 010-4002-3074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11월30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썰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2월2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9기 수료 미사**

때, 곳: 12월3일(일) 15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3-8765

**곶베틀밭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12월2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11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1월29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12월1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이재원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평만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기념미사**  
 때, 곳: 12월8일(금) 19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미사곡: 모짜르트 Missa in C Coronation Mass  
 명동대성당 연합 합창단 / 지휘: 최호영 신부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성음악봉사분과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겨울 성소 피정**

1)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 문의: 02)828-3522  
 때: 11월27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2) 2024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문의: 010-6221-3520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12월31일까지 접수  
 때, 곳: 2024년 1월19일~21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아슬리스티 팔레스트리나미사 연주**

때, 곳: 11월30일 19시30분, 서울성공회대성당  
 전석 3만원 /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가톨릭여성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미사: 손희송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때: 11월28일(화) 10시30분 / 문의: 02)778-7543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2층)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인 수녀(성빈센트드볼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모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햇살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상담전화): 02)744-0841 (일·(월) 12시~15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2438-2377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신문사 신입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광고홍보 사원 / 11월30일(목)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H2빌 생활재활교사(정규직) 모집**

장애인거주시설 H2빌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모집  
 곳: 강서구 개화동 330(전철 5호선 방화역) / 02)6925-2366

**세종로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 행정·회계 업무·PC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이메일(prayforus@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3169,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9 세종로성당)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재무회계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관련 경력자 우대  
 분야: 재무회계 담당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2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11월26일(일) 15시	수녀원(신내동성당)	010-8446-3217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대림·성탄 추천 도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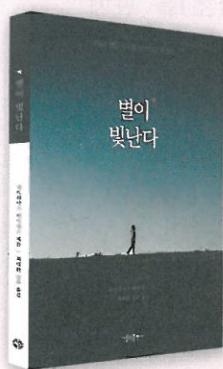
대림·성탄 추천 도서

## 대림 묵상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6천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써 내려가는 영성 일기

‘오늘의 묵상’을 읽고 답하며  
나만의 묵상 노트를 완성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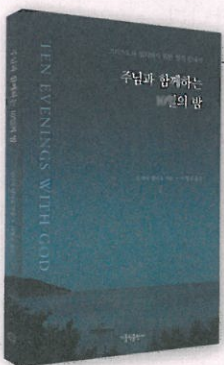
대림·성탄 추천 도서

## 별이 빛난다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 1만3천원

내 안의 반짝이는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

주님이 심어주신 갈망을  
발견하는 특별한 묵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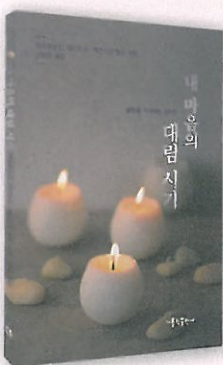
대림·성탄 추천 도서

##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일리아 델리오 지음 | 1만6천원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영적 안내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깨닫는  
열흘간의 성찰의 밤



대림·성탄 추천 도서

## 내 마음의 대림 시기

마르쿠스 C. 라이트슈 외 지음 | 8천원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돌아보는 대림시기

기쁨과 희망으로 묵상하며  
실천으로 채워보세요

## 2024년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지향 탁상 달력

2024년, 바티칸뉴스 한국어 페이지에서 제작한 탁상 달력과 함께  
매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지향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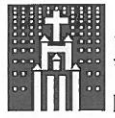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화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대림환(초) 판매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대림환(초)를 판매 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 25일(토) ~ 12월 3일(주일)  
 장소 : 성당 마당 / 금액 : 20,000원

◎ 모든 성인의 모후 Pr. 레지오 선서식

일시 : 11월 28일(화) 오후 7시 40분 / 305호  
 선서자 : 한은희 수산나

◎ 바오로시니어대학 종강식 및 졸업식

일시 : 12월 1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 2024년 1월만 동아리 활동 없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12월 2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 · 어린이 축복식

일시 : 12월 3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연령회 미사

일시 : 12월 5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성탄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연성회 (7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14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여성 울뜨레아

일시 : 11월 28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304호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10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성탄 판공성사를 보신 후 반드시 성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교적에 성사 이력이 3년 동안 입력되지 않으면 냉담자로 처리됩니다.

◎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한국지부 홍보 및 후원자모집  
 일시 : 12월 2일(토) 18시미사 ~ 3일(주일)  
 ※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 교회를 지원하는 사목 원조 기구입니다.  
 성탄 시기를 맞이하여, 종교 박해를 받는 나이지리아 교회와 긴 내전에 이어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며 영적 물질 지원을 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은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무금 책정자 변경을 12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1. 1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0	843 (41.3%)	812 (39.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1월 13일~19일)

곽선도 ..... 오천원	조옥숙 ..... 일십만원
이미경 ..... 일십만원	박정수 ..... 일십만원
김태홍 ..... 일십만원	이현수 ..... 일십만원
이현중 ..... 일십만원	함영동 ..... 일만원
은희봉 ..... 오만원	홍선호 ..... 오만원
이중호 ..... 일십만원	박영은 ..... 삼십만원
미리클합창단 ..... 일십만원	익명 ..... 일백만원
익명 .....	익명 ..... 일십만원일백육십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3주일)

교무금 ..... 9,050,000원  
 주일헌금 ..... 5,786,000원

입당	75	봉헌	215, 220, 513	성체	174, 506, 180	파견	73
----	----	----	---------------	----	---------------	----	----

